

전남도, 나주에너지국가산업단지 조성 속도 낸다

산단 조기 활성화 관계기관 회의 인허가 진행 점검·협력 방안 논의 국토교통부, 심의 통과 초읽기

전남도가 에너지신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나주 에너지국가산업단지' 조성예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8일 나주시청에서 '나주 에너지국가산업단지' 조기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인·허가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기관별 협력·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나주 에너지국가산업단지는 오는 2030년까지 나주 혁신산업단지 인근에 122만㎡ 규모로 조성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3685억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으로, 에너지 밸리산업과 신소재나노융합소재산업 등 에너지신

산업의 성장거점 역할을 할 계획이다.

지난 2022년 12월 에너지산단에 대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됐고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남아있다.

전남도는 관계기관 합동 실무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 각종 인·허가 대응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행정 절차 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했다.

또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와 동시에 토지 보상 절차가 이뤄지도록 사업 시행 구역 결정과 보상 업무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원활한 보상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소유자 방문 설명 등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나주 에너지국가산업단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강기정 광주시장이 8일 오전 열린 'CES 2025 광주공동관 온라인' 개관식에 참석해 미국 현지 참석자들에게 영상으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호남 대표 공연예술단체 7곳 선정

문체부, 전국 32곳 194억원 지원...광주, 여성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2곳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공연예술단체로 광주여성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전국 32개 단체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선정된 단체는 분야별로 연극 11곳, 전통예술 9곳, 클래식·음악 8곳, 무용 4곳이다. 지역별로는 전라권 7곳, 제주도 2곳, 경상권 8곳, 충청권 7곳, 경기·인천권 5곳, 강원권 3곳을 배정했다. 이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1차적으로 선발한 지역예술단체를 대상으로 문체부에서 재심의를 거쳐 국비를 일부(40~70%) 보조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올해 최종 선정된 예술단체에 대해서는 작품 장·제작을 지원하고, 작품평론, 공연홍보 등 후속 지원을 더해 총 194억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역에 기반을 둔 우수 공연예술단체를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에 따라 서울 소재 단체는 제외했다.

광주에서는 광주여성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사단법인 전통연희놀이 연구소 등 2개 단체가, 전남에선 나주 비상무용단, 여수심포니 오케스트라, 해남 풍물굿패회 등 3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전북에서는 남원시 김화숙&현대무용단사모, 익산시 극단 작은소리와 동작 등 2개 단체가 선정됐다.

이정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지역공연 예술단체가 지역 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금고 협력사업비 147억원 출원

광주은행 120억·농협 27억원 기존 출연금 대비 2배 이상 증가

올해 광주시 금고에 선정된 금융기관의 협력사업비가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1급고인 광주은행은 120억원, 2급고인 농협은행은 27억원 규모의 협력사업비를 출원했다. 2021년 1급고인 광주은행이 40억원, 2급고인 국민은행이 20억원을 출원한 데 비해 2.45배나 늘어난 것이다.

업계에서는 1·2급고 통합이 아닌 분리 공모로 전환된 점과 고병일 광주은행장의 연임 도전 등이 맞물려 광주은행이 금고 수성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시 예산 규모에 비해 금융기관의 협력사업비가 적다는 지적이 시 안팎에서 제기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채은지(더불어민주당·비례) 광주시의원은 지난해 4월 기준 광주시 시 금고의 협력사업비가 전국 광역시 중 최하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광주와 예산 규모가 비슷한 대전시 금고는 148억원(116억원·32억원)을 출원했으며 지역 은행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도 부산은행은 부산시 1급고에 303억원, 대구은행은 대구시 1급고에 220억원, 경남은행은 울산시 1급고에 130억원을 각각 출원했다. 이번 공모에 1급고에는 광주은행과 국민은행이, 2급고에는 국민·농협·우리·기업은행 등 4곳이 참여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신제품·기술력으로 'AI 도시 광주' 세계에 널리 알릴 것"

광주홍보관 2곳 개관...지역기업 15개사 우수 기술·제품 전시

광주시가 세계 최대 전자·정보통신(IT)기술 전시회 'CES 2025' 개막에 맞춰 '광주공동관'과 '통합한국관 내 광주관'을 개관하고, 지역 대표 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전 세계에 전파한다.

광주시는 8일 오전 7시(현지시간 7일 오후 2시) 'CES 2025' 광주공동관 개관식 갖고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했다.

광주시에서는 강기정 시장과 부시장, 실·국장 등이 온라인 영상으로 개관식에 참여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대표단을 꾸려 'CES 2025'에 참가하려 했지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을 위해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실무자를 중심으로 참가 규모를 최소화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온라인 영상을 연결해 개관식과 광주공동관 참가기업 부스를 일일이 살펴보고 "광주의 우수한 기술력을 세계시장에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광주공동관에서는 ㈜인비즈, 주식회사 정선메드, ㈜트위그림, 이·솔테크, ㈜아트랩, ㈜인디제이, ㈜호그린에어, ㈜리버트리, 주식회사 유니컴퍼니, 에코피스주식회사, ㈜블루랩솔 등 11개사가 우수 기술·제품을 전시한다.

광주시는 이번 'CES 2025'에서 광주공동관 11개사, KOTRA 통합한국관 내 광주관 4개사 등 15개사를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CES 2025' 참가를 통해 '대한

민국 AI 대표도시 광주'가 그동안 쌓아온 AI 신제품·기술을 세계시장에 알리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공동관은 바이어 등 방문자 편의와 전시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방형으로 운영되며, 전면에 안내부스를 설치해 전시관 안내와 광주시 홍보를 동시에 진행한다. 또 공간 내부에는 기업 홍보와 피칭 공간도 꾸렸다.

'CES'는 미국소비자기사협회(CTA)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전자·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전시회로, 매년 1월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다. 'CES 2025' 주제는 '몰입(Connect, Solve, Discover. Dive in)'이며, 기술과 기술, 기술과 인간을 연결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전남도, 1% 저리 용자 '농어촌진흥기금' 500억 투입

최대 개인 2억원·법인 10억원 24일까지 읍면동서 접수

전남도가 전남도내에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 법인 등에게 각각 최대 2억원, 10억원을 1% 저리로 융자해준다. 전남도는 지난 1990년부터 현재까지 농어촌진흥기금 2364억원을 조성해 매년 450개 농가에 500억원을 융자 지원해주고 있다.

전남도는 8일 "농어업인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500억원을 1% 금리로 융자 지원키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읍면동서 사업 대상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이나 전남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법인이다. 개인은 1억원(학사농업인 2억원), 법인은 2억원(가공·유통회사 10억원), 저은행정고 설치 자금은 5억원 한도에서 1% 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농지 구입, 증·양식 등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종묘·종배, 원료 구입 등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특히 학사농업인은 3년 거치 후 10년 균분 상환이 가능해 농어업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융자 지원을 바라는 농어업인이 주소지나 사업장 관할 읍면동에 필요 용도에 맞게 신청하면 시군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 전남도에서 2월 7일까지 융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은 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돕는 정책이므로,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농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농어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